[스페인] E-coli 파동, 스페인 수출 가격에 타격

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유럽에 일었던 E-coli 파동이 2011-12 년 스페인의 수출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. E-Coli 파동은 독일에서 E-Coli 의 발생으로 6 개월간 2,150 명 이상이 감염, 22 명의 사망자를 기록, 사태 초기 E-Coli 의 발생 원인이 스페인산 오이로 지목된 바 있다.

발생 원인이 스페인산 오이가 아닌 독일의 숙주나물 재배농장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산 과일 및 야채 평균 수출가격은 지난 9 월에 급격히 하락하여 E-coli 파동이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었다.

스페인 신선 농산물 연합회인 훼펙스 (Fepex)가 새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, 스페인의 신선 농산물의 평균 가격은 2010 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%가 하락한 킬로그램당 0.75 유로로 나타났다.

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야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야채 가격은 평균적으로 15%가 하락했으며 과일 가격은 4%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스페인산 과일과 농산물의 수출량 자체는 해당 월에 2%가 증가한 427,967 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의 하락 폭이 수출량 증가폭 보다 큰 5.5%에 달한 것이 전체적인 수출금액 하락에 반영되어 320 백만 유로로 집계되었다.

훼펙스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가격하락이 어떻게 2011-12 년 캠페인의 시작에 타격을 줬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. 또한 2011-12 년 캠페인에 크게 영향을 미친 3 가지 요소로 첫째,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과일 및 야채 섭취량 감소, 둘째, 유럽연합의 E-Coli 파동에 대한 미숙한 처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가격 통제의 비효율성을 꼽았다.

성명서를 통해 스페인 신선 농산물 연합회는 유럽연합이 위기 관리 시스템과 시장 진입 가격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.

출처: www.fruitnet.com